

제 3회 『인간관계론』_데일 카네기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5명
2021년 1월 10일 경남 창원시
올탑 스터디카페 석전동

3부

1장

논쟁을 피하라

어느 날 밤 로스 경을 위한 연회에 갔다. 저녁을 먹는 중 옆에 앉은 사람이 경구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신이다.”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했다. 틀렸다. 나는 알고 있었다. 확실히 알고 있었다. 내가 옳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고, 내가 우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 주고 싶기도 해서 그가 요청하지도 않고 반겨 주지도 않았는데 굳이 나서서 그의 오류를 고쳐 주려고 걱정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뭐라고? 셰익스피어였다고? 그럴 리 없어! 말도 안 돼! 그 말은 성경에 나온 거야. 난 알고 있다니까!

이 사람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왼쪽에는 내 오랜 친구 프랭크 개몬드가 앉아 있었다. 개몬드 씨는 몇 년에 걸쳐 셰익스피어를 연구했던 사람이다. -중략- 개몬드씨는 이야기를 듣고, 식탁 아래에서 나에게 발길질을 한 번 하고는 말했다. “데일, 네가 틀렸어. 이 신사분이 옳아. 성경 말씀이야.”

그날 밤 집으로 오는 길에 나는 개몬드 씨에게 말했다. “프랭크, 그 말을 셰익스피어가 썼다는 건 너도 알잖아?”

“그럼, 물론이지.” 그는 대답했다. “『햄릿』 5막 2장이지. 하지만 데일, 우린 즐거운 연회에 손님으로 간 거잖아. 왜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널 좋아할까? 그냥 체면을 살려 주면 좋잖아? 그 사람은 네 의견을 묻지도 않았어. 원치도 않았고. 그런데 왜 그런 사람과 논쟁을 해? 예리한 칼날은 피하고 보는 법이야.”

“예리한 칼날은 피하고 보라.” 이 말을 한 사람은 지금은 가고 없지만, 그가 가르쳐 준 교훈인 계속 남아있다.

상황에 맞는 행동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의 연회에 손님으로 갔으면 그 분위기를 깨지 않고 손님으로서 행동을 해야 한다.

나는 당시 못 말리는 논쟁의 달인이었다. -중략- 대학에 가서는 논리학과 논증을 공부했고, 토론 대회에 나가기도 했다. 나중에는 뉴욕에서 토론과 논증을 가르쳤다. 이야기하기도 창피한 말이지만, 한때는 그 주제로 책을 한 권 써볼까 생각도 했었다. 그 이후로 나는 수도 없이 많은 논쟁을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거기에 참여도 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기도 했다. 그 결과 내가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방울뱀을 피하듯, 지진을 피하듯 논쟁을 피하라.

논쟁은 오직 자기 자신과만 하는 것이다.

논쟁이 끝날 때, 논쟁을 벌이던 사람 중 열에 아홉은 자신이 절대 옳다는 확신을 더욱 굳힌 상태가 된다.

논쟁은 이길 수 없다. 왜냐고? 글썄, 다른 사람에게 승리를 거두고, 그의 주장에 구멍을 송송 뚫어 놓고,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다고 하자. 그래서 어찌겠다는 건가?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떨까? 당신은 상대방이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승리에 분개하리라. “자신의 의지에 반해 설득당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자. 몇 년 전 패트릭 J. 오헤어 라는 대단히 논쟁을 즐기는 아일랜드 사람이 내 수업에 들어온 적이 있다. 그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언쟁을 좋아했다.

언쟁을 즐기면 못 배웠다는 평을 들을 수 있다.

몇 개의 질문만으로도 나는 그가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과 끝없이 논쟁을 벌이며 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오헤어는 화를 내고 으르렁거렸다. 당시엔 논쟁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았다. 나중에 그는 내게 말했다. "저는 흔히 어떤 사람의 사무실을 나오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저 친구에게 제대로 말해 준거야.' 물론 제가 논쟁에서 이겼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물건은 하나도 팔지 못했죠."

어느 장소와 상황이든 갑과 을의 위치를 잘 알아야한다.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가서 주인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